

# 상이군인의 전쟁 기억과 손상의 (비)가시화

## - 미즈키 시게루의 아시아태평양전쟁 만화를 중심으로\*

허윤\*

1. 들어가며
2. 미담의 재생산과 군사주의의 그림자
3. '위안부'와의 동일시와 옥쇄의 탈남만화
4. 선주민과의 교류와 장애의 봉합
5. 나가며

### 국문초록

요괴 만화로 잘 알려진 만화가 미즈키 시게루는 1943년 아시아태평양 전쟁 말기 라바울에서 폭격으로 왼쪽 팔을 절단하고 상이군인으로 제대했다. 1922년생인 그는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했던 이전 세대와 달리, 패배와 죽음을 목전에 둔 전쟁터로 파병되었다. 군국주의 교육을 받았지만, 실제 전쟁터에서는 누구보다 많이 죽어야 했던 세대로서 전중 세대는 전쟁의 허무함을 체험해야 했다.

미즈키는 한국에도 번역된 <전원 옥쇄하라!>와 <일본 현대사>, <라바울 전기>를 비롯하여 단편 <패주기(敗走記)>, <고냥(姑娘)> 등을 통해 전쟁 서사를 여러 차례 발표했다. 그는 쇼와 전쟁의 포스트메모리를 만들어내

\* 이 논문은 부경대학교 신진연구자 도전연구 기반지원사업(2023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국립부경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부교수

는 생산자로서 위안소의 '위안부'들이 군인들과 마찬가지로 동원된 자들이라는 사실을 인지했다. 그는 군대의 규범이 군인다움을 전혀 실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비판한다. 신병은 괴롭힘의 대상이고, 이유 없는 체벌이 가해진다. 무의미한 죽음을 강요당하는 옥쇄를 탈남만화하고, 일본 군대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여 죽음을 미화하는 서사들과 차별화시켰다. 상이군인으로서 미즈키는 전쟁의 비참함을 전달하는 '영웅'이 될 수도 있었지만, 자신의 만화를 통해서 군대의 모순을 기록한 것이다. 이러한 **포스트메모리**는 전쟁 기억을 다시 쓰는 작업으로 인해 가능해진다. 전쟁에 대한 미즈키의 기억은 라바울 선주민과의 유대로 마무리된다. 아시아태평양전쟁에 참전했던 일본인들이 죽음을 애도하는 방식으로 과거를 기억했다면, 미즈키는 라바울의 선주민들과의 관계로 전쟁의 기억을 대리보충한다. 선주민들과의 관계를 통해 전쟁으로 인한 손상을 정상화·혼종화할 수 있었던 덕분이다.

(주제어: 미즈키 시게루, 전쟁, 포스트메모리, 만화, 상이군인, 장애)

## 1. 들어가며

1945년 8월 6일 일본군 제2사령부이면서 통신센터이자 병참기지였던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리틀 보이(Little Boy)가 투하된다. 곧이어 8월 9일에는 군수도시 나가사키에 팻맨(Fat Man)이 떨어졌다. 이미 연합군의 폭격으로 일본 본토는 폐허가 된 상태였다. 아시아태평양전쟁 말기 제국의 수도인 도쿄에 가해진 공중폭격은 일본인들에게 무력감(feeling of impotence)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sup>1)</sup> 아시아와 태평양 일대에 걸쳐 거대한 제국을 건설했던 일본은 전쟁의 패배로 전후 식민 상태에 돌입한다. 각지에 미군정이

설치되었으며, 미군들이 거리 곳곳에 나타났다. 오키나와는 1972년까지 미군 체제로 복속되었다. 이는 다년간의 폭격으로 이미 초토화되었던 일본인들에게 전쟁에 지고 식민지가 되었다는 감각을 형성했다.

패전 이후 일본은 연합국총사령부(GHQ)의 지휘 아래 있었고, 동아시아는 미군의 주둔에 따라 재배치되었다. 각 지역에 배치된 미군은 식민지에서 해방된 국가들에 미국의 힘에 대한 동경을 불러일으켰다. 이는 리틀 보이와 팻맨이 상징하는 미국의 군사력과 이데올로기에 대한 동경이기도 했다. 개전권을 빼앗긴 일본은 점령군인 미군을 위해서 일본인 여성을 모집하고 특수위안시설을 운영했으며 “1억 엔으로 일본 여성의 순결을 지킬 수 있다면 싼 편이다”라는 말을 서슴지 않았다.<sup>2)</sup> 전후의 일본 남성 지식인은 “미국에서 ‘아버지의 문화’를 발견하고, 자신들이 패배한 것은 이 ‘아버지’가 부재한 탓이라고 간단히 연결시키고 싶어하는” 경향이 나타났다.<sup>3)</sup> 아시아태평양전쟁은 어떻게 재현·기억되고 있을까?

홀로코스트 연구자인 마리안느 허쉬는 “앞선 세대들이 기억하는 경험과 개인적, 집단적, 문화적 트라우마를 자신들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 이미지, 그리고 행위들을 통해 견지하게 되는 ‘이후 세대(generations after)’

1) 세계 1차 대전 당시 영국에서 벌어진 공중폭격은 모럴 효과, 테러 효과라 불렸다. 폭격은 무력감, 공포, 좌절, 저항할 의지의 상실 등을 주었다. 이는 전쟁 스펙터클이 정동적 효과를 노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Ben Anderson, “Modulating the Excess of Affect: Morale in a State of “Total War””, *Affect Theory Reader*, Duke University Press, 2010, pp.161-185. 그런데 이때 무력감은 impotence 즉, 발기 불능과 연결된다. 연합군의 원자탄과 공중폭격은 제국 일본을 거세하려는 시도이기도 한 것이다.

2) 마코사키 우케루, 『미국은 동아시아를 어떻게 지배하였나』, 양기호 역, 메디치북스, 2013, 64쪽.

3) 上野千鶴子, 「解説『成熟と喪失』から三十年」, 『成熟と喪失』, 講談社, 1993, p.276. 강상중, 『내셔널리즘』, 이성모 역, 이산, 2004, 157쪽 재인용. 우에노 지즈코는 에토 준의 『成熟と喪失』의 해설에서 전후 남성들의 정신세계를 위와 같이 지적한 바 있다.

와의 관계”를 지적하면서, 세대적·역사적 거리로 인해 트라우마적 기억과는 구분되는 이차적인 기억을 강조한다.<sup>4)</sup> 세대가 바뀌면서 간접적으로 트라우마적 사건에 매개된 경험을 토대로 구성되는 포스트메모리 시대에는 기념비, 의례, 문학이나 문화 같은 재현물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아시아태평양전쟁 관련 텍스트를 다수 발표한 만화가 미즈키 시게루를 경유하여 전쟁 기억의 서사화와 상이군인이 손상을 재현하는 방식을 살피려고 한다.

1922년생인 미즈키 시게루(水木しげる)는 1943년 아시아태평양전쟁 당시 라바울 전투에 참여했고, 폭격으로 왼쪽 팔을 잃었다. 이후 만화가가 된 그는 <게게게의 게타로(ゲゲゲの鬼太郎)>, <캇파 산페이(河童の三平)>와 같은 요괴 만화로 전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그가 살았던 사이토미나토시에는 미즈키 시게루 기념관이 만들어졌고, 그의 작품은 여전히 TV 애니메이션, 영화 등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이런 미즈키 만화의 한 축은 전쟁과 관련된 만화(戦記漫画)이다. 그는 한국에도 번역된 바 있는 장편 <전원 옥쇄하라!>(1973)와 <일본 현대사(コミック昭和史)>(1988~1989), <미즈키 시게루의 라바울 전기>(1994)(이하 ‘라바울 전기’)를 비롯하여 <패주기(敗走記)>(1970), <고냥(姑娘)>(1973) 등 단편 전쟁 만화를 다수 출간했으며, <딸에게 전하는 아버지의 전쟁기: 작은 천국의 이야기(娘に語るお父さんの戦記: 小さな天国の話)>(1975)(이하 ‘아버지의 전쟁기’)<sup>5)</sup>도 발표한 바 있다. <아버지의 전쟁기>와 <라바울 전기>가 자신이 직접 화자로서 전쟁

4) M. Hirsch, *The Generation of Postmemory: Writing and Visual Culture After the Holocaust*, Columbia University Press: New York, 2012. p.5.

5) 이 책은 1975년 최초 출간된 이래 1982년 부제를 제외한 『딸에게 들려주는 아버지의 전쟁기』로 출판, 1985년 증보판이 나왔으며, 1995년 개정증보판이 재출간되었다. 본고에서는 1995년 간행된 개정증보판을 기초로 2022년 출판된 문고판을 저본으로 삼았다. 『娘に語るお父さんの戦記: 小さな天国の話』, 河出書房新社, 2022.

경험을 이야기한다면, 〈전원 옥쇄하라!〉와 〈패주기〉, 〈고냥〉은 자신의 경험이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창작한 만화다. 미즈키는 요괴 만화뿐 아니라 전쟁 만화로도 세계적인 인정을 받았다. 2008년 〈전원 옥쇄하라!〉로 프랑스 앙굴렘 국제만화페스티벌 유산상과 미국 아이스너상 최우수 아시아 작품상을 수상했다. 〈일본 현대사〉 역시 2015·2016 아이스너상 최우수 아시아 작품상을 수상했다. 미즈키의 전쟁 체험은 전쟁 만화를 비롯해 다른 서사물에까지 영향을 주었으며, 그의 삶에서 중요한 테마로 자리잡았다. 그는 전쟁과 관련한 만화, 수기 등을 평생에 걸쳐 발표했으며, 작품을 통해 직접적으로 전쟁 반대를 이야기해왔다.

미즈키 시계루에 대한 연구의 다수는 요괴 만화를 중심으로 한 미즈키 작품 세계의 특징이나 콘텐츠 IP 산업 등과 관련된 이슈들이지만, 전쟁만화가로서 미즈키를 살펴보는 연구들도 상당수 제출된 바 있다. 미즈키 자신이 가장 애착 있는 작품으로 꼽는 〈전원 옥쇄하라!〉를 비롯한 전쟁 만화를 통해 미즈키는 가혹한 전쟁을 경험하고 반전평화 만화를 그린 만화가로 평가되었다.<sup>6)</sup> 역사적 사실과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직조된 미즈키의 전쟁 만화는 “또 한 사람의 자신인 전사자와의 대치에 주목했다.” 살아남은 자의 죄책감이나 고뇌가 묻어난다는 것이다.<sup>7)</sup> 또한 최근에는 그의 전쟁만화를 전쟁교육이나 평화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sup>8)</sup> 한편으로는 미즈키는 패배할 것이 분명한 전쟁에 투

6) 石子順, 『漫画は戦争を忘れない』, 新日本出版社, 2016, pp.117-130.

7) 山口一樹, 『戦場体験が問いかける「生存」とナラティブ』, 『立命館平和研究』 23, 2022, pp.53-61. 이와 관련해서는 미즈키가 전후 일정 시기까지 자신의 만화에서 자신의 분신을 계속해서 죽이고 있다는 해석도 더해진다. 甲田烈, 『水木しげると妖怪の哲学』, イースト新書, 2016, pp.164-167.

8) 宿谷晃弘·藏元幸二, 『戦争教育・平和教育における二次受傷や逆効果等の問題の解決に関する一試案: 『水木しげるの娘に語るお父さんの戦記』の教材的可能性について』, 『人文社会科学系』 75, 2024, pp.171-181.

입된 것을 비판한 니힐리스트라거나 반전평화 만화가로 보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도 있다.<sup>9)</sup> 투표를 하지 않거나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갖지 않았다는 점 등을 통해서도 그를 평화주의자로까지 명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sup>10)</sup> 미즈키는 예술가의 위치에서 생각하고 있었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엇갈리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미즈키의 만화를 그의 전쟁 체험과 분리할 수 없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한국에서의 연구 역시 이러한 판단에 기초한다.

김용의는 미즈키 시게루의 전쟁 체험과 요괴 만화 사이의 관련성을 논한다. 그는 미즈키 요괴만화의 원점을 근대 이전의 원화, 미즈키의 전쟁 체험, 라바올 현지 주민과의 교류로 본다. 태평양전쟁에서 선주민들과 어울리며 경험한 영적 체험과 전쟁에서 겪은 신체의 파편화, 손상이 그의 요괴관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특히 전쟁으로 인한 신체의 ‘과잉’과 ‘결손’이 요괴 이미지를 형성했다고 설명한다.<sup>11)</sup> 최은수는 미즈키 시게루의 작품을 일본군 ‘위안부’를 중심으로 살폈다. 미즈키가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역시 ‘지옥’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배상은 해야 할 것이리라...고 언제나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 ‘위안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던 것은 분명하지만, 그의 ‘위안부’ 표상 역시 타자화되었다는 점을 지적한다.<sup>12)</sup>

9) 本間光徳, 「水木しげるの戦い: 戦争観と天皇観の超克」, 『日本研究センター教育研究年報』 8, 2019, pp.21-65.

10) 菅谷晃弘・藏元幸二, 앞의 책, p.174.

11) 김용의, 「미즈키 시게루의 요괴 만화와 태평양전쟁 체험」, 『일어일문학』 제89호, 대한일어일문학회, 2021, 485-504쪽.

12) 최은수, 「『일본군 위안부』 표상과 기억계승의 불/가능성」, 『일본연구』 제58집, 중앙대학교 일본연구소, 2023, 207-224쪽. 최은수는 이러한 지점을 비판하면서, 이 작품이 센다 카코의 『중군위안부』 직후에 발표되었기 때문에 ‘위안부’의 상황에 동정적인 자세를 취했다는 점을 지적한다. 센다 카코의 책이 일본 사회에 던진 충격을 무시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특히 <전원 옥쇄하라!>에는 나오는 위안소가 <아버지의 전쟁기>에는 등장하지 않는 것은 전쟁에 대한 금지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요소를 제거한 것이라고 비판한다. 딸로 표상되는 포스트 메모리 세대에게 '위안부'의 기억을 계승하고 싶지 않았다는 것이다.<sup>13)</sup>

본고는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아시아태평양전쟁에 관한 미즈키 시게루의 만화와 에세이를 전쟁과 포스트메모리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미즈키는 만화를 통해 전쟁을 기록하고, 전쟁 반대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특히 그의 텍스트는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를 대상으로 말걸기를 시도한다. <아버지의 전쟁기>가 딸을 청자로 지정한 것처럼, 포스트메모리의 측면을 강하게 염두에 둔 것이다. 특히 미즈키 시게루의 전쟁 기억에서 주목할 점은 그가 상이군인이었다는 데 있다. 그의 텍스트를 통해 생산된 포스트메모리는 군사주의와 장애, 손상을 재현하고 기억하는 방식을 보여준다. 이러한 측면은 아시아태평양전쟁 및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등 대규모 전쟁을 여러 차례 경험한 한국 사회에도 시사점을 준다. 전쟁에서 돌아온 학병의 좌담회나 기록, 군인들의 전기 등은 존재하지만, 미즈키와 같이 상이군인이 귀환해 성공한 작가로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텍스트를 남긴 경우는 드물다. 미즈키의 텍스트는 상이군인이 전쟁을 어떻게 기억하고, 재현하는가를 고민하는 한국 상황에도 주요한 참조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3) 최은수, 「쓰가 고헤이와 미즈키 시게루의 '일본군 위안부'」, 『일본연구』 제95집,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연구소 2023, 259-279쪽.

## 2. 미담의 재생산과 군사주의의 그림자

군대는 단련된 남성성을 이상향으로 채택했다. 용기와 희생, 우정이라는 이상은 실제 군인의 이미지 자체였고, 진정한 남자다움의 신체적·정신적 자질로 제시되었다. 군인이 된다는 것은 남자다움을 획득하는 것이고, 호전성을 방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었다. 정신력과 강인함, 인내력 같은 군인의 자질은 남성성의 특징으로 두드러지게 되었으며, 비전시(非戰時)에도 높은 가치를 인정받았다.<sup>14)</sup> 민족을 선도하는 청년의 고결함은 남성들 사이의 우정과 젊음에 대한 숭배로 이어지는 것이다.<sup>15)</sup> 이처럼 군대는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체현한 존재로서 전사자를 숭배하고, 영웅을 만들어낸다. 전쟁 영웅은 국가의 이데올로기를 완수하고, 국민을 보호한 자로서 기억되고 전시 영웅에 관한 서사들은 이를 프로파간다로 형상화한다. 전후에 만들어지는 서사물에서는 전쟁을 둘러싼 기억들이 다채롭게

14) 근대 민족의 탄생과 남성성이 연관되는 양식을 연구한 조지 모스는 이상적인 남성의 이미지가 국민이나 숭고함, 전쟁 등 민족주의 안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음을 밝힌다. 역사적 개념으로서의 남성성은 현대 사회의 규범으로서 스테레오타입화되었다는 것이다. 모스는 민족주의자들이 공격적인 남성성을 지지하고 나섰으며, 조국을 위한 죽음과 희생이라는 전사 이미지를 통해 민족주의가 완성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전사는 남성성의 고양된 이미지를 투영하고, 남성과 여성의 구분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었다. 이때 고귀한 인간성의 표현인 아름다움은 건강한 남성의 육체로 표상된다. 용기와 냉철함, 자부심과 정의감 등은 남성의 자질로서 도덕적 육체적 원칙과 결부되어 남성의 이미지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조지 모스, 『남자의 이미지』, 이광조 역, 문예출판사, 2004, 184-228쪽.

15) 이탈리아와 독일에서 확산된 파시즘의 민족사회주의는 민족주의와 고결함에 남성성의 표상을 덧붙인다. 1차 세계대전 이후 무너진 민족국가를 재건하는 것은 도덕적 쇄신과 동일시되며, 그 주체로서 청년들이 소환되는 것이다. 이는 프랑스와 영국 등 유럽의 다른 지역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남성들의 우정과 젊음에 대한 숭배가 파시즘에 공통적으로 배태되어 있는 것이다. 조지 모스, 『내셔널리즘과 섹슈얼리티』, 서강여성문학연구회 역, 소명출판, 2004, 263-306쪽.

재현된다.

전후 일본에서 아시아태평양전쟁에 관한 문학·문화적 재현에서 먼저 다루어진 것은 소설가나 학병 등 지식인들의 서사였다. 학병들은 잡지의 좌담회나 수기, 소설 등을 통해 자신의 경험을 말했고, 가미가제나 인간어뢰 등 특공방식으로 옥쇄한 군인들의 유고집이나 일기 등이 간행되었다. 옥쇄는 전투 끝에 죽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써 공격하는 방식으로, 옥쇄 서사에는 전쟁 참여에 관한 고뇌가 녹아있었다. 장교를 시작으로 이등병에 이르기까지 1950년대 전쟁과 군대에 관한 책이 발간되어 인기를 끌었다.<sup>16)</sup> 군사주의의 영향하에서 군대의 성장과 전쟁의 승전보는 국가의 발전과 동일시되었으며, 군대의 가치가 사회의 통치성을 직조한다.<sup>17)</sup> 일본의 육군, 해군의 성장은 일본 국가의 발전과 동일시되었으며, 일본인들에게 전쟁은 당연히 참여해야 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특히 황국신민 교육을 받고 자란 전중(戰中) 세대에게 국가를 위해 싸우다 죽는다는 생각은 의무로 주어졌다. 여성들은 아들이나 남편을 기꺼이 전쟁에 내보내야 한다고 배웠다. 이 모든 것이 군사주의의 영향과 효과다.

이 장에서 다룬 단편 전쟁 만화들은 미담으로 통칭되는 전쟁 일화들에 관한 서사다. 미즈키는 “생사의 경계에 ‘미담’이 있다”며, 전쟁터의 미담을 기록한다. 미즈키는 자신의 경험과 지인들로부터 들었던 이야기, 신문이나 책에서 읽은 이야기 등을 바탕으로 전쟁에 관한 단편을 연재한다. 원래 그리고 있던 만화가 팔리지 않자, 대본소 만화 잡지에서 전쟁 만화(戰記) 단편 연재(〈소년전기〉)를 요청받았기 때문이다.<sup>18)</sup> 당시 전쟁 이야기가 소

16) 吉田裕, 『兵士たちの戦後史』, 岩波書店, 2011, pp.75-88.

17) 신시아 인로, 『군사주의는 어떻게 패션이 되었을까』, 김엘리 외 역, 바다출판사, 2015, 87-121쪽.

18) 水木しげる, 『完全版水木しげる伝』下, 講談社, 2005, p.17. 1957년 미즈키는 대본소 만화를 시작하지만, 대본소 만화에서도 크게 성공하지는 못했다. 이에 연재를 시작

설, 수필, 영화 등 일본 사회 전반에서 화제가 되었기에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했다. 미즈키는 이후에도 전쟁에 관한 만화를 지속적으로 생산했다.

〈단피르 해협(ダンピール海峡)〉(1959~1960)은 부대의 깃발을 끝까지 사수한 채로 죽은 군인의 이야기다. 사소해보일 수도 있는 기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며, 군인의 소명을 다한 모습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는 미담은 전쟁의 이데올로기를 승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전쟁은 비극적이지만, 그 안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개인은 숭고하다는 것이다. 아시아태평양전쟁을 군인 정신으로 환원하여, 제국주의 전쟁의 본질이 가려지는 효과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비교적 이른 시기에 발표된 작품으로, 당시 인기를 끌었던 전쟁물의 연속선상에 있다. 〈칸데레(カンデレ)〉(1980) 역시 그러한 아이러니를 잘 보여준다. 선주민들의 말인 ‘칸데레’는 동족, 친구라는 의미다. 식량을 얻는 과정에서 친해진 선주민 여성과 결혼한 츠지다로 인해 일본군과 주민들은 ‘칸데레’가 된다. 이후 일본군은 전투에서 수세에 몰려 해당 지역을 떠나게 되지만, 아내인 메리는 한 쪽 다리를 잃은 남편을 보조하며 종군한다. 옥쇄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아내를 떠나보내려 하자 메리는 자살하여 남편의 옆에 남는 것을 택한다. 츠지다는 이후 동료들을 위해 희생하여 혼자 섬에 남겨지고, 동료들은 무사히 뉴아일랜드를 향해 떠난다. 서로를 위해 희생하는 메리와 츠지다의 사연은 동료 군인들에게 미담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츠지다의 후일담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그는 살아남아 오스트레일리아 군대에 발견되어 포로수용소에 가지만, 포로가 되었다는 죄책감에 자살한다.<sup>19)</sup> 전쟁과 폭격에서는 살아남았지만, 전쟁 후에 자살로 생을 마치는 것이다. 연이은 일본군의 자살에 오스트레일리아는 포로수용소를 폐쇄하기로 결정한다. 이렇게 〈칸데레〉는 일

한 「소년전기」가 당시로서는 제일 잘 팔리는 만화였다.

19) 水木しげる, 『敗走記』, 『敗走記』, 講談社, 2010, pp.139-149.

본 군대의 핵심이 죽음에 있다는 점을 드러낸다. 죽음을 미담으로 재현하는 것이 일본 전후 담론의 특징적인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미즈키는 미담을 재생산하면서 군사주의 문화의 그늘 역시 폭로한다. 이는 전쟁 범죄와 ‘위안부’ 문제에도 해당된다. <고냥(姑娘)>(1980)은 중국어로 ‘아가씨, 젊은 여성’을 의미하는 제목처럼 전쟁터의 납치와 강간 이야기를 다룬다. 이 이야기는 중국 전선에서 마을을 수색하던 군인들이 촌장의 집에서 젊은 여성을 발견하여 전리품으로 데려가는 과정에서 벌어진다. 군인들은 계급 순서대로 여성을 강간하기로 한다. 하지만 첫날 강간당한 여성은 자신은 ‘처녀’였으며, 이제 마을로는 돌아갈 수 없으니 결혼해서 자기를 데리고 가 달라고 부탁한다. 다음날 여자를 요구하는 군인들 사이에서 다툼이 발생하고, 싸움 끝에 부하를 죽인 상등병은 여성과 함께 중국 오지 마을로 떠난다. 군인들이 ‘전리품’인 여성을 두고 다툼 끝에 살인을 저지르고 마는 것은 군대의 남성 연대가 작은 일에도 해체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즈키는 이 일화를 여성의 부탁을 들어준 인도주의적인 이야기로 형상화했다. 납치된 여성이 최악의 상황을 모면한 셈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 만화에서 주인공은 갑작스레 여성을 책임지게 된 상등병이다. 그는 동료들을 죽인 데 책임을 지고 부대를 이탈한 것으로 그려진다. 미즈키는 남자의 입장에서 서사를 전개하면서도 후기에서 “일본인으로서 이런 일은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짧은 부기를 남긴다.<sup>20)</sup>

이 만화는 2022년 출간된 <만화로 배우는 ‘전쟁과 일본’(漫画で知る「戦争と日本」)>이라는 단행본에 실렸다.<sup>21)</sup> 이 책에는 1961년부터 1995년 사이 발표된 미즈키의 전쟁 만화 7편이 재수록된다. 모두 전쟁에 대해

20) 水木しげる, 『姑娘』, 講談社, 2010, p.278.

21) 水木しげる·吉田裕, 『漫画で知る「戦争と日本」-壮絶! 特攻篇-』, マガジンハウス, 2022.

비판적인 시각을 보여주는 작품들로, 〈천황과 나의 50년(ああ天皇とボクの五十年)〉에는 천황에 대한 비판적 언급이 직접적으로 포함되어 있어 눈에 띈다. 또한 역사학자인 히토츠바시대학 교수 요시다 유타카의 해설이 함께 수록되어 있는데, 한자 읽는 법을 병기하는 등 어린이나 청소년들도 읽을 수 있도록 해서 포스트메모리로서 전쟁 만화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고냥〉은 전쟁에서 여성을 납치하거나 강간하는 등의 문제를 직시하는 텍스트로서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다.

〈레이몬의 강둑(レーモンの河畔)〉(1980)에서도 여성에 관련된 일화가 등장한다. 역시 전선에서 발견된 두 여성을 후방으로 돌려보낸 이야기다.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을 취하는 이 만화는 일본군이 뉴브리튼에 상륙하여 오스트레일리아군과 대치하는 상황을 배경으로, 일본군의 인도적 행위를 조망한다. 중대원들은 별다른 전투 없이 날마다 굴을 파며 “성욕이 먼저냐 식욕이 먼저냐”와 같은 이야기를 주고받는다. 이 외중에 오스트레일리아군과 일본군의 경계에 살고 있는 필리핀인 호세 가족이 일본군에게 발각된다. 본부에서는 호세 일가를 스파이 혐의로 사살하라는 명령이 떨어지지만, 그 딸들에게 반한 중대원들은 그들이 스파이가 아니라는 증거를 찾아내 명령을 철회시키고자 한다. 이후 호세 가족이 식량 원조를 요청하자, 중대장은 그 대가로 딸들에게 ‘위안부’가 되라고 요구한다. 회의에 참석한 중대원들은 그들에게 부대원 200명을 상대로 하지 말고, 장교만 상대로 하자는 등 여러 의견을 내세우다 결국 ‘위안부’로 삼으려던 계획을 포기하고 가족을 라바울로 돌려보낸다. 미즈키가 실제 사건임을 강조함에도 불구하고,<sup>22)</sup> 이 전환은 매우 갑작스럽다. 전선에서 발견된 스파이 혐의

22) 이 필리핀 가족에 대한 에피소드는 〈라바울 전기〉에도 등장한다. 미즈키 시게루, 『미즈키 시게루의 라바울 전기』, 김효진 역, AK커뮤니케이션즈, 2022, 104-105쪽. 미즈키는 이 이야기가 사실에 기반하고 있다고 설명하는데, 이는 같이 실린 다른 단편에 대

의 여성과 가족을 살려서 돌려보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 두 만화의 핵심은 섹슈얼리티를 둘러싼 긴장에 있다. <고냥>과 <레이몬의 강둑>에서 군인들은 젊은 여성을 ‘위안부’로 만드는 전쟁 범죄를 저지르려고 시도한다. 그런 점에서 이러한 ‘미담’은 오히려 무수히 많은 전시 성폭력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군대가 설치하고 운영한 위안소가 아니더라도 전쟁터에서 일본 군대와 마주친 여성들은 ‘위안부’로 동원될 위험이 있었으며, 이들을 ‘위안부’로 삼자는 발언이 자연스럽게 군인들 사이에서 나온다는 점을 통해서 위안소와 위안소가 아닌 곳의 구분도 없었으며, 전시 성폭력에 군대와 군인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미즈키는 여성들에 대한 사죄의 마음을 표현하면서 이 상황을 미담으로 기록하지만, <고냥>이 수록된 단편집의 표지 역시 여성의 신체가 전면화되어 있다. 여성의 대상화에 대한 문제의식은 부재하는 것이다. 이는 이러한 재현이 더 이상 미담일 수 없는 시대에 와서 폭로의 효과를 갖는다. 미담을 기록하기 위해 만화를 남겼지만, 그 만화가 전쟁의 그늘을 드러낸 것이다.

미즈키의 미담은 군사주의의 영향하에 있지만, 동시에 군사주의의 한계를 폭로한다. 여성들을 돌려보낸 이야기를 통해서도 ‘위안부’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포로가 된 후 자살하는 이야기를 통해서도 일본 군대의 죽음에 대한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미담으로 기록된 이야기 중 일부는 이후 전쟁을 비판하는 선집에 수록되는 등 전쟁 미담이 이데올로기의 선전이지만, 동시에 전쟁의 참혹한 일상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 역시 드러낸다.

---

해서는 ‘약간 픽션을 섞었다’고 기록한 것과 비교해볼 때, 미즈키가 기억하는 범위 내의 ‘사실’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미즈키의 후기에 따르면, 이들은 일본인인 남편이 인질로 잡혀 있어서 스파이가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 3. ‘위안부’와의 동일시와 옥쇄의 탈낭만화

군사주의는 전사자를 숭배하고 전쟁을 신화화한다. 국가 주도하에 죽음을 추모하는 상징과 의례가 만들어졌고, 전사자들의 죽음은 공적인 것으로 의미부여됐다.<sup>23)</sup> 미즈키는 이러한 죽음의 국가화가 위안소와 군대에서 모두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준다.

군사주의 문화에서 남성성을 형성하는 증핵은 섹스다. <전원 옥쇄하라!>에서 ‘위안부’는 전투를 앞둔 보상으로 주어진다. 부대원들은 잠시라도 쉬는 시간이 생기면 여자와 잔 경험을 털어놓으며 어느 나라의 여자가 더 좋다는 말을 나눈다. 내일 마실 물도 없는 상황에서도 여자와 섹스 이야기로 긴장을 늦춘다. 섹스에 대한 담론은 군대 문화를 구성하는 핵심적 요소가 된다.

가장 인기가 있었던 것은 늘 그렇듯 여자 흥내를 내는 병사였는데 ‘미인’ 일수록 인기가 있었다.

한창 젊은 나이의 병사들은 허구한 날 ‘여자’이야기만 했다.<sup>24)</sup>

<전원 옥쇄하라!>는 상등병이 초년병들에게 다들 위안소에 다녀오라고 명령하면서 시작한다. 하지만 위안소에는 이미 기다리는 사람이 많아 폐관 시간을 맞이하고 만다. 군인들은 위안소를 향해 “다 나라를 위한 일”이라며 불평하고, 여성들은 “나는 어째서 이런 고달픈 역할을 하지 않아선 안 되나”, “이 모든 게 부모 위한 일”이라는 노래를 부른다. 이 노래는 <전원 옥쇄하라!>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며 ‘위안부’ 여성과 일본군인을 같은 위치

23) 조지 모스, 『전사자 숭배-국가라는 종교의 희생제물』, 오윤성 역, 문학동네, 2015, 61쪽.

24) 미즈키 시게루, 『미즈키 시게루의 라바울 전기』, 15쪽.

에 놓는다. “나는 어째서 이런 괴로운 임무를 하지 않으면 안 되나”, “이 모든 게 국가 위한 일”<sup>25)</sup>이라는 노래를 부르며 군인들은 옥쇄를 결행한다. 이 구절은 <일본 현대사>에서도 반복해서 등장하며 동원된 국민의 마음을 표현한다.<sup>26)</sup> 국가를 위한 영광스러운 죽음이라는 프로파간다에도 불구하고, 군인들은 죽음을 눈앞에 둔 자로서 자신의 삶을 비판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위안부’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데까지 이어진다.



<그림 1> <전원 옥쇄하라!>, 340-341; 346-347쪽.

(가) 강제 징용으로 끌려온 그녀들은 병사들과 마찬가지로 열악한 대우를 받고 있어서 보기에도 딱한 지경이었다.<sup>27)</sup>

(나) 이곳 최전선에서 위안소를 한다는 건 그야말로 목숨 걸고 하는 일. 하물며 ‘죽어가는 병사’에게 마지막 청춘을 선사하는 ‘성스러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모두 불행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sup>28)</sup>

미즈키는 자신의 만화에서 ‘위안부’에 대해 “강제 징용으로 끌려온” 불

25) 미즈키 시게루, 『전원 옥쇄하라!』, 김진희 역, AK커뮤니케이션즈, 2021, 222-223쪽; 346쪽.

26) 미즈키 시게루, 『일본 현대사』 2, 김진희 역, AK커뮤니케이션즈, 2023, 249쪽.

27) 미즈키 시게루, 『미즈키 시게루의 라바울 전기』, 30쪽.

28) 미즈키 시게루, 『일본 현대사』 2, 504쪽.

쌍한 사람들이라고 언급한다. <일본 현대사>는 가난한 집안의 딸이 유곽으로 팔려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들도 어쩔 수 없이 위안소에 와있다는 것을 지적한다. ‘위안부’를 둘러싼 사회적 구조를 지적한 것이다. 이에 ‘위안부’들의 신세는 전쟁에 끌려온 자신들의 처지와 겹쳐진다. 군인과 ‘위안부’는 모두 국가에 의해 끌려온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다. (나)에서 보듯이, <일본 현대사>에서 “이야기가 부드럽게 이어지지 않을 때 등장해서 해설해주는”<sup>29)</sup> ‘생쥐 인간’은 ‘위안부’를 ‘성스러운 사람들’로 지칭한다.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일한다는 점에서 ‘위안부’와 병사는 동일시된다. ‘위안부’와 병사 모두 ‘불행한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위안부’ 여성들은 제대로 국가의 인정이나 보상을 받지 못했다. 나중에 야스쿠니에 갈 수 있을 것이라는 말과 달리, ‘위안부’들은 전쟁에 참여했다는 인정조차 받지 못했다. 미즈키는 앞으로 죽어갈 군인과 ‘위안부’들을 동일시하지만, ‘위안부’들의 목소리가 텍스트에 등장한 적은 없다. 미즈키가 동일시했던 것과 달리 이들의 지위는 분명히 달랐다. 이는 군인의 처지와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이 구체적이고 예각화되는 것과 비교할 때 더 잘 드러난다.

미즈키의 전쟁과 군대 이야기는 전쟁으로부터 상당 시간 지난 후 텍스트화되었다. 즉각적인 경험을 숙고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한 뒤이다. 그의 전쟁 서사에서 강조되는 점은 전쟁의 부당함과 군대 내 부조리다. 근시 때문에 을중 판정을 받은 미즈키는 1943년 라바울(현 파푸아뉴기니)로 파병된다. 그는 훈련 기간을 포함해 군대 생활을 가감 없이 만화로 표현함으로써 군대의 모순을 폭로했다. 그가 경험한 전쟁은 따귀 맞기의 일상이었다. 특히 미즈키의 부대는 라바울에 상륙한 마지막 일본 군대였기 때문에, 그는 군대 생활 내내 계급이 가장 낮아서 신병 취급을 받았다. “그 시절의 나

29) 미즈키 시게루, 『일본 현대사』 1, 김진희 역, AK커뮤니케이션즈, 2023, 103쪽.

는 반성도 하지 않고 세상은 내 즐거움을 위해 존재한다고 철석같이 믿었기 때문에 내 사고방식은 종종 군대와 충돌했다. 그건 끝까지 그랬다.”<sup>30)</sup>

(가) 이야기는 일본 본토에서 라바울로 출발하는 것부터 시작되지만, 그 전부터 반년 남짓 돗토리연대 소속으로 엄청난 구타를 당해왔던 미즈키 선생에게 전쟁은 이미 반년 전에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sup>31)</sup>

(나) 반나절쯤 지나 상륙이 결정되었다. “뭘야, 라바울이 아니라 팔라우였어?” 하고 혼잣말을 하는데 “신병 주제에 아는 척하긴!” 하는 소리와 함께 이유 없이 양쪽 뺨에 따귀가 내리꽂혔다.

‘선임병님, 주의 감사합니다’라고 생각해야 한다. 선임병의 명령은 천황 폐하의 명령과 같다는 알 듯 말 듯한 규칙 같은 것이 있었다.<sup>32)</sup>

(다) 이때다 싶었는지 평소에도 나를 때리고 싶어 안달이 나 있던 상등병이 내게 “안경 벗어!”라고 했다. 그러고는 특별히 잘못된 것도 없는데 날아오는 따귀 열대!!<sup>33)</sup>

(가)~(다)는 자전적 서사인 <라바울 전기>에서 미즈키가 묘사한 군대다. 여기서 군대는 신병을 괴롭히고 일감을 몰아주며 무의미한 죽음을 강요한다. 정신력이나 인내심, 강인함 등의 가치는 존재하지 않았다. 게다가 미즈키는 먹는 것을 지나치게 좋아하고, 자연이나 선주민을 관찰하는 것을 즐기는 성격이었다. 규범을 따르고 훈련을 엄수하는 군대의 기준에 미달되는 존재였던 셈이다. 이로 인해 전선에 파견되기 전 군사훈련을 받는 과정에서부터, 그는 군대의 규칙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중 관리 대상이 된다. 초년병은 상관의 빨래를 해야 하고 고참병들은 빈둥거리며

30) 미즈키 시게루, 『일본 현대사』 2, 459쪽.

31) 미즈키 시게루, 『미즈키 시게루의 라바울 전기』, 5쪽.

32) 위의 책, 11쪽.

33) 위의 책, 80쪽.

신병들을 괴롭힌다. 특히 그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따귀 세례를 텍스트에 자주 등장시키는데, 코믹한 방식으로 그리고 있지만 이러한 폭력이 부당하다는 인식 역시 분명히 드러난다.



〈그림 2〉 〈전원 옥쇄하라!〉, 48-49쪽.

미즈키는 동료로부터 상관이 묻는 말에 진지하게 대답하거나 진지하게 솔직하게 말하지 말라는 충고를 받는데, 그런 행동이 상관의 기분을 나쁘게 한다는 것이다.<sup>34)</sup> 그는 “군인답지 않다”는 이유로 얻어맞곤 한다.<sup>35)</sup> 워낙에 건강하고 낙천적인 성격이었던 미즈키는 군대에서 상시적으로 가해지는 폭력에 대해 우스꽝스럽게 드러내지만, 이 폭력이 부당하다는 점을 반복해서 이야기한다.

아시아태평양전쟁 시기 일본의 옥쇄는 이러한 죽음의 국가화를 가장 잘 보여준다. 자결을 해서라도 포로가 되지 않는다는 규범으로 인해, 많은 군

34) 水木しげる·吉田裕, 앞의 책, p.12.

35) 위의 책, p.19.

인들이 자살했고, 자살을 강요당했으며, 자살에 가까운 공격을 감행했다. 미즈키는 <장렬! 특공(壯絶! 特攻)>(1961)에서 특공대가 된 동생과 비행기 조종사인 형 사이의 대화를 통해 이길 가능성이 없는 전쟁에서 죽는 것의 의미를 묻는다. 어린 동생은 특공대에 자원해서 군인으로 죽겠다고 말한다. 뛰어난 군인인 그는 의미 없는 죽음이 될 것이라고 만류하지만, 결국 동생과 형 모두 전사한다. 동생은 국가를 위해서, 형은 군인으로서의 책임감으로 죽는 것이다. 미즈키는 이 만화의 끝에 “하지만 죽은 인간은 다시 살아 돌아오지 않는다. 지나간 잘못은 두 번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 동시에 전쟁으로 고통받은 사람들도 우리들은 영원히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부기를 적는다.<sup>36)</sup> <장렬! 특공>은 전쟁이 많은 사람들을 죽게 했다는 점을 잊지 않도록 함으로써 전쟁의 참혹함을 전하고자 한다. 그리고 전쟁의 참혹함을 보여주는 예로 특공대의 옥쇄를 사용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전쟁 당시 일본의 군인다움은 전투에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지 않는 데 있었다. 미즈키는 옥쇄의 강제성과 부당함을 이야기한다. <전원 옥쇄하라!>는 아시아태평양전쟁 말기 라바울의 즌겐(ズンゲン) 지대에 미즈키의 중대만이 남겨졌던 경험을 토대로 형상화된다. 초점화자인 마루야마는 미즈키의 페르소나다. 마루야마의 에피소드는 대부분 미즈키의 에세이나 자전적 텍스트에 나오는 내용으로, 신병인 그는 그림을 그리는 특기가 있으며, 중대장의 화투를 그려주거나 초상화를 그린다. 식량이 많아서 선임병들로부터 자주 얻어맞기도 한다. 식량은 제대로 배급되지 않고, 진지를 구축하는 가혹한 노동이 계속됐다. 이런 상황에서 남성들 사이의 우정과 연대, 책임감 등의 가치가 발동될 리 없었다. 약한 남성들은 제 몫을 다하지 못한다며 소외당하고, 먼저 죽을 수밖에 없다.

36) 위의 책, p.335.

군대가 말하는 가치는 지켜진 적이 없었던 셈이다.

적군이 상륙하면서 부대가 수세에 몰리자 타도코로 소좌는 다이난 공과 함께 싸우다 전사한 500명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대대의 인원도 정확하게 500명”이라며, “제군들이 용감하게 싸울 것을 기대하겠다”고 말한다.<sup>37)</sup> 병사들 사이에서는 “정작 중요한 내지가 영망이 되도록 당하고 있다면 대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이런 곳에서 싸우고 있는 겁니까?”<sup>38)</sup>라는 의문이 생겨나지만, 성급하게 결정된 옥쇄 계획은 변경되지 않는다. 중대장을 비롯하여 살아남은 몇몇 병사가 세인트조지곶으로 향하지만, 대본영에서는 군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옥쇄 명령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것만큼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sup>39)</sup>고 강조한다. 중대장을 비롯한 소대장, 군의관 등 장교들은 옥쇄를 완수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자결한다. 전투에서는 죽지 않았지만, 부대로 복귀한 뒤 죽은 것이다. 남겨진 81명은 적진으로 뛰어들어 공격을 벌이며 사망한다. 작품은 마루야마의 죽음을 마지막 장면으로 배치한다. 총탄을 맞은 얼굴에 벌레가 생긴 상태로 죽어가는 마루야마의 모습은 옥쇄에는 숭고함 같은 미학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길 가능성이 별로 보이지 않는 전선에서 특공이나 대규모의 집단 자결은 단순히 지원이나 선택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일본인 학병이 남긴 일기와 구술 기록을 조사한 오오누키 에미코는 당대 엘리트였던 이들이 자살행위나 다름없었던 특공에 자원한 데는 내적 동인이 있었다고 지적한다. 제국주의 전쟁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위해 죽는다는 비극적 낭만주의가 작동했다는 것이다.<sup>40)</sup> 그러나 미즈키가 그린 옥쇄에는 애국

37) 미즈키 시게루, 『전원 옥쇄하라』, 19쪽.

38) 위의 책, 207쪽.

39) 위의 책, 259쪽.

십이나 비극적 낭만의 문제는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미즈키는 전쟁과 함께 성장한 전중 세대로서 애국심과 군국주의를 충분히 학습했지만, 옥쇄의 부당함을 한결같이 주장한다.<sup>41)</sup> 옥쇄는 군대 집단의 사기를 위한 정치적인 판단이며, 옥쇄를 거부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전투에서 살아남았지만 자결해야 했던 군인들의 모습을 세세하게 기록하는 것은 아시아태평양 전쟁의 모순을 보여주었다. 무의미하게 죽고 싶지 않다고 옥쇄 명령을 거부했던 장교들이 자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군대 내부의 구조적 압력이 작동하는 방식을 보여준다. 이는 옥쇄를 둘러싼 사회적 의미를 해체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특공을 미화하는 1960~1970년대의 분위기가 한 차례 지나간 1990년대였기에 가능한 접근방식이기도 했다.

1949~1970년대 일본에서 옥쇄는 ‘순국론’과 ‘개죽음론’이 교착 상태를 형성하고 있었다.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발효 이후 연합군의 군정이 끝나고, 전사자들의 유고집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영화로 만들어지는 등 전기(戰記)물이 인기를 끈다. 특공으로 희생당한 젊은 청년들을 가해자로 상상하기는 어려운 분위기였다. 이 과정에서 안타까움과 연민이라는 감상주의가 대두된다. 노스텔지어적 감상주의가 일본 사회를 자기연민의 공동체로 만들었다는 것이다.<sup>42)</sup> 반면 미즈키의 만화는 감상이나 자기연민이 없는 옥쇄를 드러낸다. 죽어야만 명예로운 군인이 될 수 있는 구조를

40) 오오누키 에미코, 『사쿠라가 지다 젊음도 지다』, 이향철 역, 모멘토, 2004, 408-456쪽.

41) 일본의 전후 지식인들은 전쟁을 겪었던 나이에 따라 전전(1910년대생)·전중(1920년대생)·전후(1930년대생)로 나뉜다. 이들은 저마다 다른 전쟁 표상을 가지고 있으며, 전중파 지식인들의 경우, 반전평화운동을 이끈 사상가가 되기도 한다. 이들은 1920년대 초반에 태어나서 전쟁기에 성장해, 아시아태평양전쟁 말기에 전선에 투입된 세대로, 청년기에 패전 기미가 짙은 전선에 투입되어 많은 피해를 입었다. 이현정·김진기, 『일본 반전평화운동의 사상적 토양: ‘베헤텐’과 쓰루미 슌스케를 중심으로』, 『평화연구』 제26권 1호, 고려대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2018, 218-224쪽.

42) 이영진, 『광신과 애국 사이』, 『일본연구논총』 제40호, 현대일본학회, 2014, 50-56쪽.

비판하면서, 옥쇄가 아군에 의한 죽음이라는 점을 명시한다. 살아서 다시 싸우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보다 죽어서 군의 명예를 높여야 한다는 군대의 규범이 문제였다. 여기에 ‘군인답게’, ‘남자답게’와 같은 군사주의의 젠더 규범이 포함된 것은 물론이다. <전원 옥쇄하라!>는 옥쇄가 단순히 한 군인의 선택이 아니라 군대의 구조였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이는 미즈키의 전선 체험에서 비롯한다.

중대장은 나를 보자마자 “왜 도망쳤냐. 모두 죽었으니 너도 죽어라”고 말했다. 그러고는 하루도 쉬게 해주지 않았다. 그 후부터 중대장은 물론 군대조차 이해할 수 없었다. 동시에 가슴속에서는 거센 분노가 들끓었다.<sup>43)</sup>

<라바울 전기>에서 미즈키는 힘든 전투에서 겨우 살아 돌아왔으나, 왜 혼자만 살아남았느냐는 비난을 받았던 경험을 기록한다.<sup>44)</sup> 그는 ‘전진훈’을 비롯한 일본군대의 사상 교육에 대해 비판하면서, 군인들의 자결을 ‘개죽음’<sup>45)</sup>으로 칭하고, 전쟁이 끝났단 말에 속으로 웃으면서 좋아한다. 일본에서는 ‘총전’이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하지만, 미즈키는 ‘패했다’고 강조해서 적어둔다.<sup>46)</sup> 전쟁이 끝났고 일본이 졌다는 생각에 눈물짓는 사람들과는 상반되는 이미지다. 이 탈낭만화는 미즈키가 전쟁과 옥쇄의 ‘개죽음’을 논하면서도 감상주의로 흘러가지 않는 지점을 보여준다. 국가가 국민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의무를 부가하는 것”<sup>47)</sup>에 대한 문제의식이 미즈키의 전

43) 미즈키 시게루, 『미즈키 시게루의 라바울 전기』, 157쪽.

44) “이런 식으로 마치 살아 돌아온 게 잘못 같았다. 나는 당연히 칭찬받을 줄 알았기 때문에 충격이 컸다.” 미즈키 시게루, 『일본 현대사』 3, 62쪽.

45) 미즈키 시게루, 『일본 현대사』 4, 545쪽.

46) “그런 곳에서 매일 구덩이를 팠다. 2년 후 즉, 종전(일본인은 패전이라고 말하지 않는 점이 재미있다) 후 토마에 잠시 머물렀는데 중대가 있던 곳과 달리 무척 아름다운 곳이였다.” 미즈키 시게루, 『미즈키 시게루의 라바울 전기』, 42쪽.

쟁 만화의 핵심인 셈이다.

#### 4. 선주민과의 교류와 장애의 봉합

상이군인이었던 미즈키는 전선에서 말라리아에 걸리거나 사고로 죽는 군인들을 자신의 텍스트에 자주 등장시킨다. 본인의 부상에 관해서도 여러 차례 설명한다. 그런데 미즈키의 장애 재현은 여타의 트라우마 관련 텍스트들과 차이를 보인다. 장애를 재현하는 텍스트들은 장애를 통해 비극을 심화시키지만, 실제 장애를 재현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예를 들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경유하여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체현한 인물들의 몸과 삶은 트라우마적 사건 이후 맞닥뜨린 비극이 펼쳐지는 장소로 재현된다. 소설이 그리는 인물의 피해와 고통이 사건의 사실성과 지속성을 보여준다는 인식처럼, 손상된 몸은 증언으로 읽히고, 장애화된 삶은 사건을 환기하는 기제가 된다.<sup>48)</sup> 손상과 장애는 때로는 이데올로기를 홍보하는 프로파간다로 사용되기도 한다. 전시소설은 군인들을 모범적인 애국자의 전형이자 우월한 존재로 그렸다. 남성들은 참전하여 국가를 수호하는 과정에서 가족을 수호하고, 국가를 수호한다고 의미화했다. 전시 민족의 희망이자 중요한 존재로 군인이 제시된 것이다.<sup>49)</sup> 상이군인 표상 역시 전쟁의 이데올로기를 선전하는 통로로 자주 사용되었다. 전쟁으로 생긴 장애는 영광스러운 것으로 서사화되었다. 하지만 상이군인의

47) 水木しげる·吉田裕, 앞의 책, p.48.

48) 이지훈, 『한국 5·18소설의 장애 재현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2, 7-17쪽.

49) 신은경, 「1950년대 전시소설 연구: 전시의 민족 정체성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1, 63-85쪽.

현실을 다룬 소설에서 상이군인은 전쟁의 희생자이거나 연민의 대상이 된다. 국가적 영웅에서 정신적 신체적 상흔을 가진 자로 변모한 것이다.<sup>50)</sup>

대규모의 전쟁은 장애를 둘러싼 사회적 인식을 구조화하는 계기를 만든다. 손상된 신체는 ‘일할 수 없는 몸’으로 여겨져서 사회부조의 대상이 되지만, 전후 일본에서 팔이나 다리가 한쪽 없는 사람은 국가의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충분히 일할 수 있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손상에 대한 의미 부여가 상황에 따라 달라진 것이라 볼 수 있다.<sup>51)</sup> 아시아태평양전쟁 말기에는 군인의 수가 모자랐기 때문에 장애가 있는 사람도 영장을 받았다.<sup>52)</sup> 이는 미즈키의 서사에서 장애를 재현하는 방식과도 연관된다. 미즈키는 장애를 입는 순간은 세밀하게 기록하지만, 이후 자신의 삶에서 장애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서는 거의 말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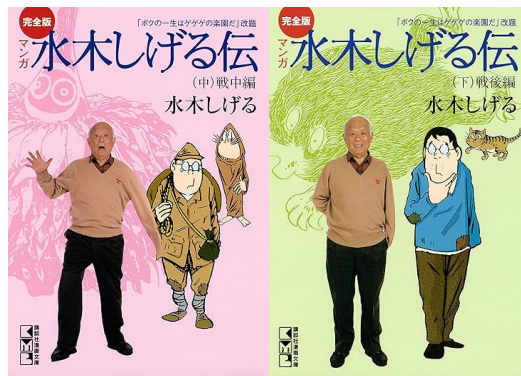
미즈키는 말라리아에 걸린 상태에서 폭격을 당하고 결국 왼쪽 팔을 절단한다. 전쟁을 서사화하는 과정에서 미즈키의 신체 장애는 가시적으로 드러난다. 자기서사인 〈완전판 미즈키 시게루전(完全版水木しげる伝)〉(이하 ‘미즈키전’)과 미즈키의 경험에 일본 현대사를 녹여 설명한 〈일본 현대사〉에서는 미즈키가 부상을 입은 상황이 상세히 설명된다. 〈미즈키전〉

50) 위의 책, 103-120쪽. 신은경은 비종군작가의 소설에서 상이군인을 전쟁의 희생자로 보거나 전쟁의 공포나 참혹함을 떠올리게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연민의 대상이 된 것이다.

51) 장애의 사회적 모델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장애와 손상을 구분하면서 손상은 개인적 차원을 의미하고, 장애는 사회적 차원의 문제라고 분류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에 와서는 장애와 손상을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손상 그 자체가 장애의 사회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 모델들은 ‘장애’, ‘손상’, ‘장애인’을 고정된 개념으로 간주하거나 ‘장애인’ 범주의 획일적 동질성을 전제로 삼지 않는다. 장애는 사회적으로 구성된 개념이며 몸의 손상과 인종, 젠더, 섹슈얼리티, 계급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엘리슨 케이퍼, 『페미니스트, 퀴어, 불구』, 이명훈 역, 오월의봄, 2023, 39-46쪽.

52) 『戦傷病者とその家族の体験記』, しょうけい館, 2023, p.6.

의 표지는 현재 시점의 미즈키와 군인 미즈키, 작가의 목소리를 대신하는 생쥐인간이 동시에 등장하는데, 이들은 모두 한 쪽 팔이 없는 상태다.<sup>53)</sup> <미즈키전>의 전중편에서는 군복을 입은 미즈키와 생쥐인간이 등장하고, 전후편에서는 일상복을 입은 만화가 미즈키가 등장한다. 전중편에서 미즈키의 잘린 팔이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데 반해, 전후편에서의 미즈키는 팔을 자연스럽게 내리고 있어서 손상된 팔이 눈에 띄지 않는다. 이러한 시각적 배치는 자기서사의 전개와도 맞아떨어진다. 그는 전쟁을 묘사할 때만 자신의 장애를 이야기하고, 전후의 삶에 대해서는 가난을 중점적으로 제시한다



〈그림 3〉 <미즈키전> 전중편, 전후편 표지

53) 김용의, 앞의 글, 495쪽.

미즈키의 전쟁 회고에는 미즈키가 팔을 잃고 군용 나이프로 절단 수술을 하는 과정이 자세히 제시된다. <전원 옥쇄하라!>에서도 절단된 신체 이미지가 전쟁의 참상을 드러낸다. 김용의는 이러한 미즈키의 신체 이미지는 미즈키의 요괴 만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 원한을 품고 죽은 사람들의 원념을 소재로 한 요괴화가 많았는데, 이러한 요괴의 원념과 아시아태평양전쟁 전사자들의 원념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sup>54)</sup> 미즈키는 자기 서사에서 팔의 장애를 전면적으로 가시화하지 않는 대신 요괴화를 사용했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중일전쟁에서 상이군인으로 돌아와 이후 작가 생활을 했던 나오이 키요시(直井潔)는 자신과 같은 중증 장애인을 주인공으로 소설을 썼다.<sup>55)</sup> 그러나 미즈키의 만화에는 장애를 가진 사람은 등장하지 않는다. 대신 요괴나 생쥐인간과 같은 비인간 형상이 다수 나타난다. <일본 현대사>에서 생쥐인간은 미즈키를 대신해 역사적 사건의 배경이나 의미 등을 설명하고 평가한다. 요괴나 생쥐인간 등은 비현실적이거나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여주는 존재들이다. 이 비인간존재는 라바울 선주민과의 교류를 통해서 만나게 된 세계이기도 하다.

팔의 절단 이후 후송을 기다리던 미즈키는 담배를 파파야, 타피오카 등 먹을 것과 바꿀 수 있단 말을 듣고 병원을 빠져나가 선주민 마을로 간다. 이때 만난 것이 토페토로, 이프페와 같은 선주민 친구들이다. 그는 이들에게 밥을 얻어먹으며 살았다. “눈이 떠지면 자연히 발이 ‘숲사람들’에게로 향했다.”<sup>56)</sup> <그림 4>에서 미즈키는 부대의 상관들에게 혼나면서도 마을

54) 위의 글, 500-501쪽.

55) 이치카와는 나오이의 소설에는 나오이와 마찬가지로 중증 장애인이 주인공으로서 반복해서 나타나고, 그로 인해 그를 돌보는 사람 역시 등장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市川 遥, 『傷痍軍人の語る「傷跡」—直井潔の作品とケアの様相をめぐって』, 『戦後日本の傷跡』, 臨川書店, 2022, pp.12-23.

56) 미즈키 시게루, 『일본 현대사』 3, 309쪽.

행을 포기하지 못하는데, 이 과정에서 그는 희망을 느낀다. 손상된 신체를 표현하기 위해 제대로 눈을 뜨지 못하는 얼굴을 그렸지만, ‘아기 냄새’와 같은 ‘천국의 향기’를 느낀 이후에는 안경을 쓴 미즈키의 모습으로 돌아온다. 별다른 치료 없이 손상된 팔이 낫는 비일상을 경험한 것이다. 미즈키는 손상에서 회복하는 과정을 선주민과의 만남으로 설명하고, 이는 ‘천국’으로 묘사된다. 선주민 마을에서 환대받으며 휴식을 취한 것이 손상의 치료와 연결된 것이다. 이러한 경험은 미즈키가 전쟁을 기억하는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림 4〉 미즈키, 〈일본 현대사〉 2, 310-311쪽.

미즈키의 전쟁 기억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하나는 옥쇄나 폭격을 비롯한 전쟁터에서의 고통이고, 다른 하나는 현지 주민들과 어울려 생활한 행복이다. 라바울의 환경은 척박했다. 보급물자는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고, 일본군은 최소한의 식량만을 가지고 출발했다. 전투로 죽는 것이 아니라 질병, 배고픔, 노동 등으로 죽는 군인의 수가 적지 않았다. 미즈키는 일본군으로서는 드물게 현지 주민들과 어울리면서 전선에서 시간을 보

냈다.

(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매일 작업을 하면 지치게 마련이다. 가끔 휴식시간에 이야기를 나누면 다들 '이렇게 노예처럼 살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했지만 토인들과 사귀며 즐겁게 지내던 나는 남달리 기운이 넘쳤다.<sup>57)</sup>

(나) 적군의 총알뿐 아니라 다양한 이유로요. 말라리아, 공습, 악어, 지독한 중노동 등 '천국에서 보낸 초대장'으로 가득차 있었거든요<sup>58)</sup>

(다) 그렇다.... 여기는 모두가 천국으로 갈 곳이었다....<sup>59)</sup>

(가)와 같이 미즈키는 선주민들과 교류하면서 그들의 언어와 춤을 배우고 즐겁게 지냈다. 이는 '천국에서 보낸 초대장'으로 가득했던 전선에서 희망을 만들었다. 전선에서 미즈키는 악몽에 시달리거나 초현실적인 경험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 그런데 선주민들과의 만남으로 '작은 천국' 역시 경험한다. 그들과 생활하면서 삶에 대한 희망을 얻었다. 현지 제대를 하고 라바울에 머물고 싶다고 생각할 만큼, 미즈키는 선주민 사회의 일원이 되었다.

그의 자기서사에서 '천국'은 죽음을 목전에 둔 절박한 상황과 주민들과의 관계에서 경험한 행복이라는 양가적 의미를 갖는다. '숲사람들'과의 만남으로 인해 미즈키는 자신의 장애에 대해 생각하지 않아도 됐다. 전쟁에 대한 기억이 폭격이 아니라 선주민들과의 교류로 대리보충될 수 있었던 것이다. 30년이 지나 다시 현지를 방문한 그는 동료 군인들의 버려진 유골을 모아 장례를 치러주고, 토페토로의 집을 방문한다. 가족을 데리고 라바

57) 미즈키 시게루, 『미즈키 시게루의 라바울 전기』, 165쪽. 미즈키는 처음 책을 쓰던 당시 선주민을 '토인'이라고 지칭했고, 현재 출간되는 책에는 지금 시점에서는 올바르지 않은 표현이지만 당시 원작자가 사용한 표현을 그대로 사용했다는 안내가 붙어 있다.

58) 미즈키 시게루, 『일본 현대사』 2, 502쪽.

59) 미즈키 시게루, 『전원 옥쇄하라!』, 25쪽.

울로 이주하겠다고 말하고 다닐 만큼, 빈번하게 라바울에 돌아가고, 라바울에서 녹음해 온 노래를 듣거나 촬영한 영상을 보았다. 이후로도 여러 차례 그들과 교류하며 토페토로의 장례식까지 참여한다. 이러한 경험은 미즈키의 만화 세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미즈키에게 영적인 것은 안정감을 주고, 그것을 그림으로써 예술가로서 자신을 완성한다.<sup>60)</sup>

미즈키의 자기 서사에서 손상과 장애는 전쟁을 재현하는 과정에서만 등장하고, 그 이후의 극복기에서는 서사화되지 않는다. 물론 그가 팔을 잃은 과정은 자세히 기록된다. 라바울에서 일본에 돌아온 후 상이군인 병원이거나 모임에 나갔던 기억을 기술하지만, 그 장애가 자신의 삶에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그림을 배우거나 만화가가 되는 과정에서 왼팔이 없는 것으로 인한 경험을 서술하지는 않는 것이다. 쇼와 역사의 흐름을 짚어나가면서 미즈키 개인의 역사를 함께 서술하는 〈일본 현대사〉와 〈미즈키전〉 등을 토대로 미즈키의 자기 서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패전 후 1947년 미즈키는 일본으로 돌아온다. 재수술이 필요했던 그는 사가미하라 육군병원에서 수술 차례를 기다리면서 먹을 것을 준다는 말에 교회에 참석하여 시간을 보낸다. 상이군인들과 젊은 여성들은 목사의 집에 초대받아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sup>61)</sup> 군대나 정부 대신 교회나 여성들이 이들의 복지를 책임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는 같이 입원해 있던 상이군인들과 함께 ‘어찌구 신생회’라는, 상이군인들이 모여 먹고 살 방법을 모색하는 모임에 참가한다. 이들은 허가를 받아 생선가

60) 宿谷晃弘, 「表現者たちの戦争体験：靈性の観点からの一粗描」, 『人文社会科学系』75, 東京学芸大学紀要, pp.163-170, 2024.

61) 조지 모스는 가족이 국가를 대신해서 원천적으로 정념을 통제하는 값싸고 효과적인 수단이었으며, 치안대, 교육자, 그리고 민족 자체에 의한 성적 통제의 필수 불가결한 대리자였다고 지적한다. 조지 모스, 『내셔널리즘과 섹슈얼리티』, 서강여성문학연구회 역, 소명출판, 2004, 39-40쪽.

계를 시작했지만, 장사에 실패한 상당수는 거리 모금에 나섰다. 도움을 받아야 할 대상이 된 것이다. 이 시기 미즈키는 무사시노미술학교에 등록하지만, 학비가 없어서 제대로 학교에 다니지 못한다. 이후 그는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다 종이연극, 대본소 만화 등으로 활동 반경을 옮겨가며 그림을 그린다. 그러던 중 강담사의 주간지에 만화를 그리기 시작하고 이후 만화가로서 성공가도를 달린다.

전후를 복기하는 과정에서 미즈키의 손상보다 중요한 것은 가난한 만화가로서의 일상이다. 그는 원고료를 제때 받지 못하거나 만화가 팔리지 않아 전당포를 전전하면서 살아간다. 결혼 과정에서도 가난 때문에 고통받는 만화가로서 스스로를 재현한다. 미즈키의 가족은 그의 자기서사에 자주 등장하지만, 장애와 돌봄의 문제는 전면화되지 않는다. 젊어서는 돈이 없어서 고생하고, 나중에는 특이한 물건이나 생물을 집에 들이는 미즈키의 기행을 감당하는 모습이다. 이는 미즈키의 아내가 쓴 자전 에세이에서도 마찬가지다. 미즈키의 가족은 한 팔이 없는 상이군인 출신의 가난한 만화가와 결혼해서 헌신적으로 그를 내조한 아내가 있는 모범적인 가족 서사로도 유명하다.<sup>62)</sup> 미즈키의 아내는 부모가 맞선 사진을 보여주었을 때, 팔 한쪽이 없다고 들었지만 몸을 반대 방향으로 돌리고 있어서 팔이 잘 보이지 않았으며, 자전거를 타고 있는 모습에 오히려 활기를 느꼈다고 말한다. 미즈키는 맞선을 보러 집으로 온 날, 한 팔로 스토브에 불을 붙이는 등 자상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sup>63)</sup> 이처럼 미즈키는 손상된 몸을 가지고

62) 미즈키 시게루의 아내 무라 누노에는 자신의 결혼생활을 담은 에세이 『세계계의 아내 (ゲゲゲの女房)』를 발표한다. 이 책을 토대로 2010년 NHK에서 동명의 아침드라마가 방영되어 큰 인기를 끌었으며, 2022년에는 영화도 개봉했다.

63) 武良布枝, 『ゲゲゲの女房』, 実業之日本社, 2011, pp.34-63. 미즈키는 40살이 되기 전에는 결혼해야 한다는 부모의 강권으로 맞선을 보고 5일 만에 결혼식을 올렸다. 누노에는 내성적이고 헌신적인 성격으로, 맞선 당시 미즈키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에 대

있지만, 주변을 잘 살피고 생활을 위해 분투하는 가장의 모습으로 등장한다. 남편이자 아버지로서 미즈키 시게루의 손상은 '정상화'되는 것이다. 물론 이는 그가 결과적으로 성공한 만화가가 되었다는 데 근거하는 것이기도 하다.

상이군인의 전쟁 이후의 삶에서 가족 만들기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빈곤이나 질병과 싸우면서 가장이 된 남성들은 아내, 자녀와 함께 정상 가족을 만들면서 시민으로서 자신의 몫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미즈키의 자기 서사가 그의 손상과 장애를 비가시화하는 지점과 맞물리며 전쟁 서사의 한 축을 담당한다.

## 5. 나가며

쇼와에서 헤이세이가 되자 웬지 내 마음도 평정을 찾았다. 그 전쟁에 대한 어찌지 못하는 분노가 해방된 듯한 기분 때문이었다. 전쟁 중에는 모든 천황의 이름으로 시작해 그 이름으로 괴롭힘을 당했기 때문에 갈 곳이 없는 분노가 무의식적으로 '천황'에게 향했다.<sup>64)</sup>

미즈키는 쇼와 천황의 죽음에 대해 쇼와가 끝나면서 자신의 삶도 끝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는 고백을 남긴다. 쇼와의 전쟁이 삶의 많은 부분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이 전쟁 피해자로서의 자신이다. 1922년생인 그는 '전중파'에 해당한다. 전중파 세대는 황국신민 교육을 받고 자라, 전시의 일상화를 완전히 체현했던 세대로서 성장했다. 전쟁에서

---

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고 회고한다.

64) 水木しげる, 『完全版水木しげる伝』下, 講談社, 2005, pp.277-278.

승리를 경험했던 이전 세대와 달리, 전중파는 패배와 죽음을 목전에 둔 전쟁터로 파병되었다. 누구도 살아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다. 군국주의 교육을 받았지만, 실제 전쟁터에서는 누구보다 많이 죽어야 했던 세대로서 전쟁의 허무함을 체험해야 했다. 이는 이후 일본의 남성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겨본 적이 없는 제국의 군인은 스스로를 피해자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미즈키의 텍스트에서는 전쟁에서 살아남았다는 수치가 없는 인물이 등장한다. 사회적인 것으로 형성된 수치심을 거부하는 것이다.<sup>65)</sup> 미즈키는 군대 내에서 얻어맞고, 배가 고파서 고생했고, 폭격당해 팔을 잃었지만, 자신이 전투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가에 대한 서사는 등장하지 않는다. 이는 전중파 지식인들이 ‘사람을 죽이고 싶지 않았다’는 고백을 좌담회를 통해 공개했던 것과 비교할 때, 눈에 띄는 지점이기도 하다. 국가가 치른 전쟁에서 국민이 피해자가 되었다는 기억이 미즈키의 작품을 통해 드러난다고도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일본 현대사〉에서 낙오된 일본군의 인양 문제나 재일조선인의 삶을 언급하면서 일본의 식민 지배의 책임을 지적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제국주의 일본의 전쟁 동원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상이군인으로서 미즈키는 전쟁의 비참함을 전달하는 ‘영웅’이 될 수도 있었다. 대신 그는 자신의 만화를 통해서 군대의 모순을 전한다. 그는 군인다움의 규범이 실제 군대에서는 지켜지지 못했다는 것을 고발했다. 위안소의 ‘위안부’들과 말단 병사들은 국가에 의해 동원된 죽음이라는 측면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옥쇄의 구조적 문제 역시 그가 힘주어 말한 부분이다.

미즈키는 자신의 전쟁 체험을 바탕으로 전쟁이 국민의 삶을 제약하고

65) 장지영, 「오오카 쇼헤이와 포로기에 나타난 ‘수치’ 고찰」, 『한일군사문화연구』 제16호, 한일군사문화학회, 2013, 347-365쪽.

구속하는 문제에 대해 비판한다. 군대에 동원된 사람들이 헛되게 죽어가는 현실을 반복해서 서사화하고, 국가와 군대의 잘못을 폭로한다. 이처럼 미즈키가 전쟁에 대한 기억을 적극적으로 서사화할 수 있는 것은 현존하는 전쟁의 기억인 자신의 장애를 다양한 방식으로 통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라바울 선주민과의 교류를 통해 전쟁의 기억을 대리보충한다. 아시아태평양전쟁에 참전했던 일본인들이 죽음을 애도하는 방식으로 과거를 기억했다면, 미즈키는 드물게도 전쟁터에서 만났던 선주민들과 관계를 이어나갔으며, 이러한 혼종성이 미즈키 전쟁 만화의 포스트메모리를 형성했다. 팔을 잘라낸 후 미즈키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천국'에서의 만남 덕분에 그는 전쟁으로 인한 손상을 치유할 수 있었다. 미즈키가 발표한 많은 수의 전쟁 텍스트는 전쟁을 경험한 세대로서, 후속 세대에게 남기는 당부이자 전쟁에 관한 포스트메모리로서 여전히 힘을 갖는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 미즈키 시게루, 『전원 옥쇄하라』, 김진희 역, AK커뮤니케이션즈, 2021.
- 미즈키 시게루, 『미즈키 시게루의 라바울 전기』, 김효진 역, AK커뮤니케이션즈, 2022.
- 미즈키 시게루, 『일본 현대사』 1~4, 김진희 역, AK커뮤니케이션즈, 2023.
- 水木しげる, 『完全版水木しげる伝』上·中·下, 講談社, 2005.
- 水木しげる, 『姑娘』, 講談社, 2010.
- 水木しげる, 『敗走記』, 講談社, 2010.
- 水木しげる, 『娘に語るお父さんの戦記: 小さな天国の話』, 河出書房新社, 2022.
- 水木しげる·吉田裕, 『漫画で知る「戦争と日本」—杜絶! 特攻篇—』, マガジンハウス, 2022.
- 武良布枝, 『ゲゲゲの女房』, 実業之日本社, 2011.
- 『戦傷病者とその家族の体験記』, しょうけい館, 2023.

### 2. 논문과 단행본

- 가야트리 스피박, 『다른 세상에서』, 태혜숙 역, 여이연, 2003.
- 강상중, 『내셔널리즘』, 이성모 역, 이산, 2004.
- 권김현영, 「민족주의 이념논쟁과 후기 식민 남성성」, 『문화과학』 제49호, 문화과학사, 2007, 39-54쪽.
- 김용의, 「미즈키 시게루의 요괴 만화와 태평양전쟁 체험」, 『일어일문학』 89, 대한일어일문학회, 2021, 485-504쪽.
- 마고사키 우케루, 『미국은 동아시아를 어떻게 지배하였나』, 양기호 역, 메디치북스, 2013.
- 신시아 인로, 『군사주의는 어떻게 패션이 되었을까』, 김엘리 외 역, 바다출판사, 2015.
- 이영진, 「광신과 애국 사이」, 『일본연구논총』 제40호, 현대일본학회, 2014, 39-72쪽.
- 이현정·김진기, 「일본 반전평화운동의 사상적 토양: '베헤렌'과 쓰루미 슌스케를 중심으로」, 『평화연구』 제26권 1호, 고려대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2018,

209-243쪽.

- 장지영, 「오오카 쇼헤이와 포로기에 나타난 ‘수치’ 고찰」, 『한일군사문화연구』 제16호, 한일군사문화학회, 2013, 347-365쪽.
- 조지 모스, 『남자의 이미지』, 이광조 역, 문예출판사, 2004.
- \_\_\_\_\_, 『내셔널리즘과 섹슈얼리티』, 서강여성문학연구회 역, 소명출판, 2004.
- 최은수, 「'일본군 위안부' 표상과 기억계승의 불/가능성」, 『일본연구』 제58집, 중앙대학교 일본연구소, 2023, 207-224쪽.
- \_\_\_\_\_, 「쓰가 고헤이와 미즈키 시게루의 ‘일본군 위안부’」, 『일본연구』 제95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연구소 2023, 259-279쪽.
- 甲田烈, 『水木しげると妖怪の哲学』, イースト新書, 2016, pp.164-167.
- 吉田裕, 『兵士たちの戦後史』, 岩波書店, 2011.
- 本間光徳, 「水木しげるの戦い：戦争観と天皇観の超克」, 『日本研究センター教育研究年報』 8, 2019, pp.21-65.
- 山口一樹, 「戦場体験が問いかける「生存」とナラティブ」, 『立命館平和研究』 23, 2022, pp.53-61.
- 石子順, 『漫画は戦争を忘れない』, 新日本出版社, 2016.
- 宿谷晃弘・藏元幸二, 「戦争教育・平和教育における二次受傷や逆効果等の問題の解決に関する一試案: 『水木しげるの娘に語るお父さんの戦記』の教材的可能性について」, 『人文社会科学系』 75, 2024, pp.171-181.
- 市川遥, 「傷痕軍人の語る「傷跡」—直井潔の作品とケアの様相をめぐって—」, 『戦後日本の傷跡』, 臨川書店, 2022.
- B. Anderson, “Modulating the Excess of Affect: Morale in a State of “Total War””, *Affect Theory Reader*, Duke University Press, 2010.
- M. Hirsch, *The Generation of Postmemory: Writing and Visual Culture After the Holocaust*, Columbia University Press: New York, 2012.

## Abstract

### The Post Memory of War and Un-visibility of Wounded Soldiers - Focusing on Shigeru Mizuki's War Cartoons

Heo, Yoon(Pukyong National University)

Shigeru Mizuki, born in 1922, was a cartoonist famous for his monster cartoons as well as a soldier dispatched to Rabaul in 1943. At the end of the Asia-Pacific War, he was discharged due to left arm amputation by bombing. This assignment to the battlefield involved imminent defeat and death. This was unlike previous generations, who experienced victory in wars. No one expected the soldiers to return alive. Although educated in militarism, the entire generation experienced the futility of war, facing more mortality on the battlefield than any other age.

Mizuki has published war stories several times through All Lockdown!, Modern History of Japan, Rabaul War Story. Mizuki made a significant attempt to avoid displaying himself as a hero with war stories. Mizuki recognized that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of the brothels were drawn into the war like soldiers. However, he is not free from the criticism of objectifying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He criticizes that the military norms do not practice real battlefields at all. Recruits were subject to harassment and unprovoked corporal punishment. He desolated the lockdown and pointed out the structural problems of the Japanese military, differentiating from the glorified death. Mizuki made a significant attempt to avoid painting (displaying) himself as a hero with war stories. As a wounded soldier, Mizuki could have become a hero. Instead, he wrote criticisms of the military in his cartoons. This post-memory is made possible by the work of rewriting war memories. Mizuki's memory of the war ends with his bond with the Rabaul natives. Mizuki's relationship with Rabaul's

indigenous people makes up for the memories of the war. The Japanese participating in this war utilize the memory of the past to mourn death. This is in contrast to Mizuki, however, who utilizes the war to remember and reflect on his time with indigenous people.

(Keywords: Shigeru Mizuki, the Asia-Pacific War, Post Memory, Cartoon, Wounded Soldiers, Disability)

논문투고일 : 2025년 01월 09일

심사완료일 : 2025년 02월 14일

수정완료일 : 2025년 02월 16일

게재확정일 : 2025년 02월 17일